

고향사랑 기부제 국민의견 수렴

도, 고향사랑기부금 법제화 기반 익산서 첫 설명회... 시행령 입법예고안 설명·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등

지난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 6일에 입법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첫 설명회가 열렸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9일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도내 14개 시군 및 전라, 충청권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 맞춰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설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국정과제 채택 및 제21대 국회 법제화의 기반이 된 익산시에서 첫 번째 설명회가 개최돼 더 의미를 더했다는 후문이다.

설명회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과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설명에 이어 자치단체 담당자의 질문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부금 모금강요 등에 따른 모금제한 기간을 1~8개월로 규정했다.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광고매체로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자적 전송매체 등으로 유형을 구체화했다. 지자체와 계약관계 등에 있는 개인에 대한 개별적 기부 권유·촉려도 제한했다.

또한 답례품은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해져 전자기기, 골프용품 등 자신감이 높은 물품은 답례금지 품목으로 정했다.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 운용 방안,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공개 및 위반사실 공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시행령의 입법예고 내용은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는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목 선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



신의 주소지 이외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과 일정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으로 쓸 수 있는 제도다. 작년 10월 19일 공포,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제45회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시상식 개최

섬유분야 '은혜로 사랑으로'... 신덕순씨 대상

도자분야 '모란당초문 다기세트'... 채수환씨 금상 수상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45회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시상식이 송하진 전북도지사, 진정욱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유관기관 대표 및 수상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예품대전은 6개 분야 110점(작품수량 460점)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서동석 심사위원장(전 서해대학 총장)을 비롯한 12인의 심사위원

이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50명의 입상작품과 15점의 특별상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했다.

대상은 섬유분야에 출품한 신덕순씨의 '은혜로 사랑으로', 금상은 채수환씨의 도자분야 '모란당초문 다기세트', 은상은 박안섭씨의 도자분야 '백자연꽃이슬'과 박미애씨의 섬유분야 '시집가는 날', 동상은 이형목씨의 금속분야 '소중한 우리의 전

통' 등 4명이 선정됐다.

또한 장려상은 김옥영씨의 종이분야 '지승그릇' 등 12명을 선정했고, 특선은 김소현씨의 금속분야 '조선의 머리장식' 등 9명, 입선은 양희원씨의 도자분야 '동백' 등 21명, 이 밖에도 장현희씨의 도자분야 '만개' 등 15명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공예품대전 입상작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공개·전시중이다 /유호상 기자

도 보건환경연구원, 신규 환경공무원 교육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내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20일 도·시군 악취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소문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MZ세대 환경 민원 담당자들과 함께 토크북 위는 아이디어 공유로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경직된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도록 카페 미팅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민원인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대응에 중요한 악취 시료 채취 방법과 분석 방법 등을 교육하여 전문성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며, 악취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환경민원처방' 데이터를 활용한 악취오염원 조사, 맞춤형 컨설팅 사례 등을 발표하여 악취 개선방안 마련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미래 지적제도 방향을 논하다”

전북도 지적·공간정보분야 발대표회 개최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 지적제도 발전 방향 모색

전북도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부안 모항해너루 가족호텔에서 2022년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발대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재산권과 관련 있는 지적(地籍)제도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가 나아갈 미래의 지적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발표회를 통해 연구과제를 공유했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지에 따라 시군 및 지적측량수행자, 관련 학계 등이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하는 연구과제는 도내 시·군 공무원 및 한국 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직원, 지적측량업체, 관련 학계를 대상으로 지적업무와 공간정보의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 과제를 사전 공모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새만금 해양수산분야 국책사업 발굴 회의 개최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위해 도-전북연-전문가 역량 모아

새정부 국정과제 등 공약사업 연계... 정책 발굴·논리마련 집중

새만금의 대규모 사업 발굴을 위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해양수산분야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과제, 민

선 8기 공약과 연계할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자리로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대학교수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회의는 새만금해양수산분야 국책사업 발굴 계획 보고와 아이팀 발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새만금 사업 인프라 구축과 대표 콘텐츠 발굴, 지

속 가능한 해양수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중점과제로 아이디어 발굴에 힘을 모았다.

특히, 새정부 국정과제와 대통령·민선8기 공약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을 찾고, 대규모 국가사업이라는 당위성을 가진 새만금 개발과, 천혜의 자원을 가진 해양·수산분야의 여건을 살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기획하는데 중점을 뒀다.

도는 앞으로 회의에서 제안된 아이

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논리개발과 사업계획 구체화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개발을 약속하고 해양수산분야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선정할 만큼, 국책사업 발굴 시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등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